



©이윤엽 판화 냉이꽃

들꽃편지

583

2018.3.21. 춘분

<http://cyw.pe.kr> 햇볕같은이야기

종류대로 법칙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천지(天地)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갈라 구분하셨고

셋째 날에는 땅에 각종 나무와 풀과 이끼와 풀을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같은 에너지를 지으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과 각종 벌레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드디어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은 아주 정밀하고 치밀합니다.

창조의 하루는 인간들의 하루인 24시간이 아닌 하나님만의 시간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가 1만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로 창조의 기간을 일주일로 계산하여 인류 역사가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는 아주 경솔한 판단인 것입니다.

‘종류대로’는 아주 중요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은 불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겨 모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와 관련된 것들이 모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은 미래에 말한 일들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세상에 있기 때문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오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끼리 모이고, 돈은 돈 끼리 모이고, 선한 이들은 선한이들 끼리 모이고, 이쁜 것들은 꼭 이쁜 것들끼리만 모인단 말입니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하는 것이 우주의 원리인 걸 어떡합니까.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일 나쁜일 그거 다 내가 끌어온 것입니다.



♥ 정중동으로 움츠리고 있다가 다시 기지개를 켜 최용우 올립니다.

죽기살기로 사니

사는 일 자체를 죽기살기로 하니
만사가 힘겹고 뒤틀리는 것이다.
내가 만든 세상도 아니요 내가 만든 목숨도 아닌데,
되는 일은 하고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사는 게 힘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까닭은,
사람이 자연(自然)이면서도 자연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힘들여 꽃 피우는 나무 보지 못했고
힘들게 흐르는 물 보지 못했다.
사람만이 사는 게 힘겹다 한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모해도
관창이

백소문의
순북문시 **자.클.발**

부부들에게 보내는 편지

한 여성이 부부세미나에서 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요새 부부들은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남편과 장단점을 솔직하게 다 나누십시오.” 그 말대로 그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서로 부족한 점을 하나씩 나눠보자고 했다. 남편이 주저하다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다.

곧 아내 입에서 남편의 단점이 쏟아져 나왔다. “당신은 먹을 때 호로록호로록 소리를 내고 먹는데 주위 사람도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교양 있게 드세요.”

그 다음에 남편의 차례가 되었다. 남편이 손을 턱에 대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 생각하는데 남편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그 모습을 찬찬히 보니까 옛날 연애했던 시절의 멋진 남편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다. 결국 한참 있다가 남편이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그 남편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기대하는 남편일 것이다. 남편도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얼마나 많겠는가? 백화점 가서 바가지 쓴 것, 가스 불 켜놓고 잠든 것, 식당에 집 열쇠 놓고 온 것, 어디서 자동차 들이받고 온 것 등 지적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지적하지 않고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배우자의 사명은 실패와 실수를 지적하는 것에 있지 않고 실패와 실수를 덮어주는 것에 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의 약점을 찾아 보고하라고 각 가정으로 보내어진 스파이(spy)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족한 파트(part)를 메워 덮어주라고 각 가정으로 보내어진 파트너(partner)다. 삶에 힘겨워하는 반쪽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있을 때 나머지 반쪽이 주는 격려의 말 한 마디는 행복한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





부부는 서로 경쟁하는 여아관계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다. 부부는 서로의 존재 근거다. 배우자를 깎으면 자기가 깎이고 배우자를 높이면 자기가 높아진다. 배우자를 울게 하면 자기의 영혼도 울게 되고 배우자를 웃게 하면 자기의 영혼도 웃게 된다. 부부간의 갈등이 말해주는 유일한 메시지는 “나를 동반자로 존중하고 좋은 대화 파트너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나에게 먼저 잘못을 묻고 책임을 지는 태도는 깊은 신뢰를 낳지만 남에게 먼저 잘못을 묻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깊은 불신을 낳는다. 부부간에 좋은 말은 천 마디를 해도 좋지만 험뜯는 말은 한마디만 해도 큰 해가 된다. 가끔 배우자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 들어도 ‘시간의 신비한 힘’을 믿고 감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을 한번 절제하면 그 순간 에텐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가끔 자녀들이 묻는다.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 어떤 부부가 말했다. “그것도 몰라! 우리 집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야!” 자녀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생생한 교육현장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앞세워 사는 부부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통해 그 가정의 앞날에 행복의 주단이 깔리게 된다.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이한규 지음〉 부부편 중에서

©이한규 목사 <http://www.john316.or.kr>

법칙의 발견

신혼 시절 나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은 인천에 있었고 학교는 경기도 양지에 있어서 무려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학교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아내와 의논 후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오래 된 연립이었는데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 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부동산에도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녔지만 6개월이 되도록 집은 도무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수업을 마친 후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인천행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

아니다.

그럴 리가 만무하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좀 더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인가 실마리가 잡힐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여러 기억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리를 기억해 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며 유에
는 유로 역사하는 법칙이었습니다.

나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집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질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물질의 문제에 응답하지 않게 물질로서 내가 잘못하
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나에게 갑자기 하나의 상념이 떠올랐습니다.

‘아차! 십일조!’

그 집은 장인 어른이 우리가 결혼할 때 채무관계로 가지고 있던 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연립이고 교통도 좋지 않은 곳에 있어서 팔고
나서 교통이 괜찮은 곳으로 가려면 웬만한 집을 전세로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
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사정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얻어진 수입이기 때문에 나의
양심으로는 십일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전혀 그 생각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잊어먹고 있어서 전혀 생각이 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설득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고 아내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집이 팔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예상대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계시는 데 우리가 눈앞의 현실 때문에 주님께 순종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을거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
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텐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소? 하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겠지요.”

아내는 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을 팔려고 내놓고 기도했었는데 여태까지 십일조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만일 이 집이 내일이라도 팔린다면 저희는 꼭 십일조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우리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른 시간에 전화벨 소리로 인하여 잠을 깼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래 전에 우리 집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는 그냥 갔지만 오늘 갑자기 우리 집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사람과 그 사람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의 진행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일은 간단하게 진행되어 집은 그 날 중에 팔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집이 팔린 것 - 물론 그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원리 -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기도만 하고 우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기에 나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정말 어찌다가 일어난 일일까요?

그러나 나는 그 후에도 수없이 계속된 반복된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의 법칙과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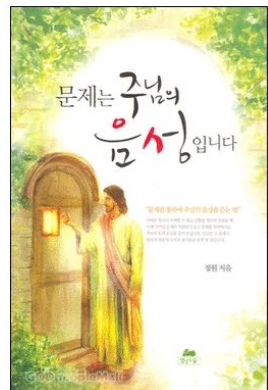
당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와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정원 지음 영성의숲 254쪽 8000원



말씀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렵니다.

주님의 말씀 날마다 배우고 익히렵니다.

주님의 말씀 언제나 전하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너무나 달콤합니다.

(375) ©최용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제적인 기도들

**내영혼이
주를찬양365**

최용우 지음
398쪽 16300원

금욕고행자 마크(st.mark)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173. 육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

마귀는 필요 없이 육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선 그가 어렵게 얻은 영적 지식의 열매를 빼앗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제거합니다

↳ 한마디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지요.

174.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만일 당신이 순수한 기도의 요새에 이르러 한다면, 원수가 제시하는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훨씬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원수가 밑에 간혀 있을 때에 위에서 기도의 화살로 공격한 후에, 원수가 강탈했던 지식을 제공하면서 우리를 기도로부터 떼어내려고 노력할 때에 그와 답판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헌신짝처럼 원수의 얼굴을 향해 날려 버리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175. 이 세상의 지식

피조물에 대한 지식은 시험을 받을 때와 태만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기도를 할 때에는 해롭습니다.

↳ 이 세상의 지식은 초개와 같은 것 한마디로 티끌 같은 것입니다.

176. 상대방이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이 영적 교훈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면적으로는 근심하되 표면적으로 동요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속으로 근심하면, 당신은 순종하지 않

은 사람의 죄책에 동참하지 않겠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동요하면 당신도 상대방과 같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 동요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까만 선글라스를 쓰세요.

177. 유체이탈 우주언어

어떤 일을 설명할 때에, 참석한 사람들의 욕구와 관련된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타당한 것을 분명히 논의하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분명히 언급하지 마십시오.

↳ 정치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노력 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예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거나 기자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우주언어’를 쓰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178. 허물과 충고

당신에게 순종할 의무가 없는 사람의 허물을 직접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충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위를 행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 순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허물도 직접 책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책망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79. 말의 기술

개개인을 언급하지 않고 한 말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그 말을 자기에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직접 당사자를 지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로 돌려 말하는 기술은 최고 난이도의 화법입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됩니다.

180. 진리의 말

당신이 올바르게 말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는 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 내 말과 하나님의 말은 그냥 딱 들어도 표가 납니다. 청중들의 반응도 매우 정확하게 내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해 냅니다. ©최용우



햇볕같은 이야기



1. 신과 함께-신과 동행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은 심악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지어 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지옥’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불교의 영향이 겠지요. 불교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극소수만 이 땅에 다시 환생하거나 극락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지옥으로 많이 가니 지옥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요.

서양권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천국’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기독교의 영향이 겠지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던지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사람들이 천국으로 많이 가니 천국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구원해주시는 이유는

첫째,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단 한번만 죄를 지어도 지옥으로 갑니다. 모든 인간들은 단 한명도 예외 없이 모두 지옥으로 가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를 지었을 때는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으며, ‘죄 용서’는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영적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용서가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나서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십니다. 신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변호해 주시지 않으면 지옥의 일곱 단계를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과 동행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보호하고, 신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크써클이 내려앉은 갓 쓴 사람이 김! 자! 흥! 자꾸 이름을 부르며 끌고 간다니깐요.

2. 신과 함께-구원 이유

서해 바다에서 유조선이 충돌하여 기름이 해안에 뒤범벅되었을, 교회에서 150만 명이 자원봉사를 했고 이는 전체 자원봉사 숫자의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포항의 교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임시 대피소로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는 온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잘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야박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봉사 그 자체가 믿는 이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꼭 ‘선교’나 ‘전도’로 연결시킵니다.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생각하여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한 마케팅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봉사가 순수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 마케팅처럼 취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죄에서 구원’ 둘째는 ‘선으로 승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 받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도무지 없었으나 이제는 의를 인하여 그 영이 살아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는 ‘전도’를 위해 교회 떠 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제발 봉사할 때 교회 떠도 두르지 말고 교회 이름도 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3. 신과 함께 -천국

귀인(貴人)이 일곱 지옥의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면 ‘환생’한다는 단순한 스토리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천국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CG로 화려하고 현란한 천국을 생생하게 묘사한다면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나 천국 영화를 만든다면 그건 보나마나 100% 흥행에 참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심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거든요. 지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개고생을 디지게 하지만, 천국에서는 살아남아야한다는 절박함이 없는 곳이라 스토리 전개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은 신자가 영화롭게 변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칭의가 구원의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곳입니다. 성화는 죄의 권세를 이겨내려는 진행형 전투라면, 영화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죄’가 털끝만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계21:4)

만약 천국에서도 정죄하여 벌을 준다면, 부끄러움, 두려움, 시기, 질투, 분노 같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한 생각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타락하기 이전 에덴동산의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선한 것만 있는 곳입니다. ‘악’이 있어야 선과 대비되는데 악은 없고 ‘선’만 있으니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4.신과 함께-부끄러운 구원

아무개 목사님께서 ‘천국에는 심판이 없다’는 글은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심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것을 ‘심판’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아무개 목사님께서 천국에 심판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해 주신 성경은 고린도전서 3:12-15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래도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다 태우는 목적은 상(賞)을 주려는 것입니다. 상을 주기 위해 따져보는 것을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을 대체할 만한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심판’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타버려도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는 남습니다. 예

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일을 했다면 홀랑 다 타버리고 터만 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칭찬이나 영광을 다 받아버린 것도 홀랑 타버립니다. 현재 인기 많고 대접 많이 받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천국에 남은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뭔가 주님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실제로 별로 남은 것이 없다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처럼 등수를 매겨서 천하에 공개하고 자랑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공력은 자신만 알 것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지 다른 이들이 놀리면서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5.신과 함께 -면류관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상은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서 있다면 어떤 큰 업적을 쌓지 않아도 누구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황금면류관, 장로는 보통면류관, 평신도들은 개털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면류관입니다. 황금면류관 개털모자 스토리는 옛날 부흥사들이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할머니들 웃기려고 한 말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면류관을 상으로 받은 성도들이 그 면류관을 막 자랑하고 빠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면류관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고 합니다.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계4:10) ‘던지며’의 원어의 의미는 “가만히 내려놓는”(lay down)입니다. “도무지 저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벗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벗어 놓고 대신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을 향해서 거룩, 거룩, 거룩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에 다시 정죄와 심판이 있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다시 죄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맘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쫓대를 향해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면서 그분의 터 위에 그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만 순수하게 지키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1.하나님의 음성 듣기

교회에서 성악가가 마이크 없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정말 소리통이 얼마나 큰지 교회당이 웅웅거리며 울렸습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깜짝 놀라며 “저냥만 기수

여? 오매~ 소리가 겁나부네. 옛날에 태어났으면 완전 장군감이네.”

옛날에는 오로지 목소리로만 의사를 전달했지요.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덕에 올라가 산상수훈을 하실 때, 수천명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소리통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순전히 라이브 생 목소리로 전하셨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좀 더 넓은 지역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세월이 흐른 후 사람들은 소리의 파장을 선을 통해 전달하는 전화기를 발명해냈습니다. 최근에는 선이 없어도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핸드폰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은 거리에 상관없이 목소리와 화면으로 나의 모습을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의사소통을 하기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아무 도구 없이도 의사소통을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뭘째서 하나님의 음성은 꼭 ‘생 목소리’로만 들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것 보다 이미 몇 단계 더 앞선 신비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2. 하나님의 음성 수신하기

결혼하고 한 20년 살다보니 저는 밤낮으로 아내에게 속속들이 다 털려서 아내가 저보다도 더 저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좀 둔한 사람이라 아내에 대해 나날이 신비롭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데, 저는 이제 아내에게 더 보여줄 것도 없고 안보여 줄 것도 없는 빈털털이 신세입니다. 하늘같은 마눌님의 성을 입고 살아가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어?” 하고 물었더니 “오래 살다보니 그냥 척 하면 착이지. 절대 나 속일 생각은 꿈도 꾸지마. 내가 다 보고 있어”...무서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것 - 느낌? 감(感)? 뭉(fill)? 뭐 그런 것을 육감(六感)이라고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에 해당하지 않는 감각을 육감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직감, 초인적 감각 같은 것이 육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하는 인간의 감각은 ‘육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육감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변환이 되어 인식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제 경험으로는)

깊은(침묵) 기도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나의 의식이 너무 강하여 오만가지 생각들이 바글바글 우글우글... 기도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잡념(분심)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의식을 벗어나 머릿속이 하얗고 투명하게 정화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感)을 주시면 나의 육감이 그것을 해석하여 의식에 전달합니다. 그렇게 의식되어 기억으로 남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수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안다.’는 말 속에는 이런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제는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대화를 시작하신다면, 여덟 살 소년이든 열여덟 살 청년이든 여든의 노인이든 상관없이 더 이상 평범한 인생이 아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로 고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말의 의미는 말쑥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일부러 그 음성을 외면하거나 못들은 척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냉랭해지고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나의 자아에 의해 덮여버립니다. 회개만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이벨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순간 “첫째, 중요한 결정을 돕는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둘째, 영혼의 어둠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성장에 힘쓰도록 일깨워 준다. 넷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다섯째, 가려진 눈을 열어 세상의 불의와 가난에 눈을 뜨게 하는 천국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최용우



(사진:최용우)

닭강정

외국인 친구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여행을 하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중에 송아지 눈처럼 커지며 '환희'를 느끼는 음식은 치킨이었다.

외국의 어느 아름다운 동네에 가서 식당을 차려놓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 음식을 파는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닭강정'이었다.

여름 삼복 더위를 이기기 위해 삼계탕 한 그릇씩 먹었었는데, 이제 아이들 표현으로 '물에 빠진 닭'은 인기가 없어졌다.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치킨들이 맛있는 양념 화장을 하고 빨리 먹어달라고 유혹하는 세상이다.

늦은 밤에 동네에 새로 생긴 '금빛통닭'에 가서 닭강정을 사 왔다.

이야.... 닭강정 진짜 맛있다.

바리스타 자격증

아내가 작년 가을 대전 용문동에 있는 학원까지 매일 밤 열심 다니면서 공부하여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었다.

그리하여 아내가 오늘 대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학원에 들려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찾아왔다.

합격증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며칠 있다가 나오니 그때 찾아가라고 하는 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6개월만에 찾아 온 것이다. 시간이 있을 때 뭐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놓으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뭐든 배운다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큰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것 같다. 아내가 또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갖고 배웠으면 좋겠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눈도 또릿또릿하고 뇌세포가 조금이라도 팔팔할 때 열심히 배워야 한다.



펄렁펄렁

가끔 온 동네 담벼락이 광고지로 도배가 되는 날이 있다. 오늘도 롯데마트 노은점 매각종료전이라는 크고 작은 광고지가 온 동네에 펄렁펄렁 나부꼈다. 도대체 언제 와서 붙이고 간 건지.

전에는 이런 광고지가 붙으면 아내와 함께 한 번씩 가보곤 했었다. 그런데 전단지에서 나온 아주 싼 상품은 사실 '미끼'다. 가서 보면 싼게 비지떡이라고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안 사고 싶어진다. 이왕 온 김에 다른 물건 구경한다며 둘러돌아보다가 계획에 없는 물건을 사오기 일수였다.

옛날에는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를 따라 물건을 만들어 팔았다. 그런데 요즘엔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혹시 다음에 필요할지 모르니 일단 사 두라고 엄청난 양의 광고들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한다.

음... 절대 안 속아야지.



강남 풍경

날씨가 따뜻해 잠시 금강변길 걸었다. 금남교 건너면서 보니 그새 금강의 남쪽 강남에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제법 도시의 모습이 갖춰가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강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금강보를 개방한 이후로 물이 쪼그라들어서 모래톱도 생겼고 강 가운데 무인도 섬도 생겼다. 물만 넘실댔 때보다 훨씬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다.

물도 다니는 길이 있다. 그것을 ‘물길’이라고 한다. 아직 금강보를 개방한 후 큰 비가 안 와서 물길이 안 잡힌 상태라 강의 모습이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난다.

물길이 잡히면 물이 흐르는 곳과 강변이 확실하게 구별되면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뭐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평안함을 준다. 인간들이 건들지만 않으면 세상은 참 보기 좋다.



세상을 깨우는 종소리

아침 일찍 밝은이의 짐을 차에 가득 싣고 앞좌석에는 아내도 싣고 뒷좌석 빈 공간에 밝은이도 구겨 넣고 해서 서울로 출발했다. 두시간 만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여동생 집에 도착했다.

“밝은이 학교가 여기서 되게 가까

워. 관악산 밑으로 터널이 생겨서 한 20km 가면 밝은이 학교야. 그래서 서울 온 길에 점심이라도 함께 하려고 왔지. 앞으로 밝은이 서울 생활 좀 많이 도와줘.”

추어탕을 사 줘서 맛있게 먹고 기숙사 입사 시간인 2시에 맞춰 학교에 도착했다. 기숙사를 배정받고 기숙사에 밝은이 짐 넣어주고 잠깐 학교를 둘러보았다.

밝은이가 앞으로 4년 동안 다닐 학교이다. 총장의 비리 때문에 여기저기 까만 현수막과 대자보가 붙어 있고... 신관 건물에 박혀 있는 ‘세상을 깨우는 종’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차 좀 빼주세요

아침부터 차 좀 빼달라는 문자를 받고 밖에 나갔더니 오늘 골목길 공사를 하는데 차를 미리 빼 놓으라 한다. 보니 학산빌라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다. 차를 다 뺐 모양이다.

차를 파출소 뒤 공터에 주차해 놓고 왔다. 도대체 어떻게 일년 내내 골목길을 뚫다가 메꿨다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도시가스 공사, 상수도관 교체공사, 하수관거 공사, 오수관 공사... 땅을 파는 공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좋으련만 그런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일단 파 낸 자리를 임시로 콘트리이트 양생을 해 놔지만 저기에 언제 아스콘을 부어 길을 복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또 전화를 해서 한바탕 퍼 부어야 공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학산빌라 임씨가 또 소리 한번 쳐?



그냥 변함없음

우리 마당 한쪽에는 집을 짓고 남은 기왓장이 그냥 쌓여있다. 집을 지은 지 15년이 되었으니 15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기와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혹 지붕에 문제가 생기면 보수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옛그제 베트남으로 간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나 된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셨다.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드러내놓고 기독교 선교를 할수 없다. 그래서 유치원, 학교, 카페, 빵집을 하면서 간접 선교를 한다. 그냥 가만히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

만약 선교사님이 발각되면 바로 추방 된다. 혹시 몰라 이름이나 지역을 밝힐 수 없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어쩔 우리집 마당에 변함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기왓장 같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352회 피꼬리봉-장군봉 2017.12.28.

금강가에 있는 부용마을에서 장군봉과 피꼬리봉에 올랐다가 다시 장군봉을 거쳐 하산했다. 장군봉까지는 급경사길인데 금강과 부용면이 다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정말 근사하고 멋졌다.

조망은 세종시에 있는 산 중에 최고인 것 같았다. 아직 많이 알려진 산이 아니라서 산을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 소문이 나면 괜찮을 것 같다.

피꼬리봉에는 지난번에 없던 정자가 새로 세워져 있었다. 아직 청소조차 안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다. 왜 피꼬리봉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꼬리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무에 피꼬리 모형을 달아 놓아서 진짜 피꼬리인줄 알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잡새들만 몇 마리 푸드득 거렸다.



▲제353회 비학산 일출봉 2018.1.6

새해 첫 산행은 비학산 일출봉 오르는 것으로 시작했다. 모처럼 날씨가 풀려 보온병에 핸드드립 커피 담고 신나라 마트에서 단팥빵 하나 사서 가방에 넣고 어슬렁거리면서 뒷산 일출봉에 올랐다.

▲제354회 비학산 일출봉 2018.2.2

혈압이 높은 사람은 추운 날씨에 절대 산에 가지 말라고 하여 그동안 발바닥이 근질근질 해도 참고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쏙 풀려서 후다 딱 다녀왔다.

정상에 한 참 앉아 있는데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꺽꺽 끙끙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라온다. “흐미 디지긔는거..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결국 올라왔네. 인간 승리여. 내가 여기까지 올라 오다니.. 오 신이시여. 진정 내가 이 산을 정복하였나йка...” 지금 산을 정복했다고? 하이고...

▲제355회 비학산 일출봉 2018.2.22.

▲제356회 괴화산 2018.2.24.

괴화산은 세종의 강남 한 복판에 있는 산이라 앞으로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를 산이다. 산이라 할 것도 없이 길에서 정상까지 1km도 안 된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걸어갔더니 트레킹 글이 10km 걷기 뺏지를 준다.

괴화산 정상은 정상석 대신에 아주 오랫동안 ‘공사중’ 팻말이 서 있다. 그런데 누군가 뽑아서 산 아래로 던져버렸는지 뒤집어져 있네.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무언의 시위인가? 팻말을 다시 뒤집어 글씨가 보이게 해 놓고 인증 사진을 찍었다. 다음에 왔을 때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기를...



▲제357회 오봉산 2018.3.3.

오봉산에 올랐다. 조치원에 있는 봉우리가 다섯 개인 산이라는데, 산 봉우리라고 이름 붙은 곳을 찾아가 보면 봉우리가 아니라 무덤?

날씨가 풀려서인지 가족 단위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다. 내 경험 상 아이들이 중학교만 올라가도 엄마 아빠 따라 산에 안 간다. 그러니 초등학생 때 열심히 데리고 다녀야 한다. 오랜만에 산에 오르니 몸이 스프링처럼 튕다. 힘들다고 해책거리는 사람들 옆을 씩씩 올라갔다가 또 땀땀 내려왔다.

시속 5km 나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씨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무료배송

행복일기-너와 나와 우리의

최용우 지음 | 퍼플 | 2018년 01월 23일 출간

정가 : 14,200원

판매가 : **14,200원** [0%↓ 0원 할인]

행복하게 사는비결은 이 세상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숨어있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바꼭질처럼, 때로는 놀이처럼 지난 일년동안 열심히 찾은 365개의 행복한 모습을 모았습니다 책을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책 소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本性)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행복은 참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은 딱히 정해진 어떤 정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나 걱정거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행복이라 했고, 어떤 이는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을 가지는 것을 행복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인기, 명성, 권력, 돈 그리고 건강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학 1등급 맞는 것이 행복이라 했고, 뭘지 모르지만 지금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육체적 ‘욕망’을 따르는 외적 성취를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다. 행복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고로 욕망에 따른 행복이든, 마음에 평화를 누리는 행복이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행복 찾기’를 하자...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1년 동안 매일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 기록한 365편의 일기입니다.

☐ 책 구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책 이름으로 검색하세요.

1.햇볕같은이야기 시리즈	쪽	가격	③새벽우물(3판)	878	28,700
⑪가슴을 짝 펴라	318	12,600	④플러스 예화(2판)	490	17,000
⑫다시 별떡 일어나라	336	12,400	6.주보자료 시리즈(10권)		
⑬정정당당 잘 살자	336	12,400	①맛있는 주보CD		30,000
⑭예수 잘 믿는 비결	326	12,100	②멋있는 주보CD		30,000
⑮가장 큰 선물	326	12,100	③폼나는 주보CD		30,000
⑯인생 최대의 행복	316	11,800	④탐나는 주보CD		30,000
⑰나도 할말있다 냐옹	318	11,900	⑤양육 주보CD		30,000
⑱하나님의 얼굴	325	12,100	⑥전도 주보CD		30,000
⑲예수님을 따르는 삶	328	12,200	⑦명품 주보CD		30,000
2.일기 시리즈			⑧좋은 주보CD		30,000
⑦감사일기	392	14,100	⑨감사 주보CD		30,000
⑧햇빛일기	396	14,100	⑩기도 주보CD		30,000
⑨행복일기	396	14,200	7.기타 시리즈		
3.시집 시리즈			①월간 들꽃편지 합본		
①숲속의 아침	138	7,200			
②설레임	146	6,700			
③어부동의 아침	150	7,600			
④내영혼이 주를 찬양	398	16,300			
4.말씀기도 시리즈					
①따뜻한 밥상-아침1	400	14,300			
②따뜻한 밥상-점심1	402	14,400			
③따뜻한 밥상-저녁1	400	14,300			
5.경건묵상 시리즈					
①세상에서가장 좋은이야기	722	24,300			
②세상에서가장 밝은이야기	720	23,900			

그동안 쓴 약 70여권의 책 원고를 순서대로 한 달에 한두권씩 교보문고를 통해 계속 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23권을 펴내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책 이름'이나 '최용우'로 검색하세요. 네이버, 다음 책에서 검색해도 됩니다. 책을 구입해 주심으로 인터넷 사역을 후원하여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은
맛남 입니다~



①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春分)에 인사드립니다.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 곧 황도(黃道)와 적도(赤道)가 교차하는 점인 춘분점(春分點)에 이르렀을 때, 태양의 중심이 적도(赤道) 위를 똑바로 비추어, 양(陽)이 정동(正東)에 음(陰)이 정서(正西)에 있는 날입니다.

춘분은 음양이 서로 반반인 만큼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습니다. 춘분에는 봄보리를 파종하거나 담도 고치고 들판에 나가 냉이 달래 썸바귀를 캐 먹습니다.

요즘 마켓에 가 보면 싱싱하고 큼직한 냉이가 푸릇푸릇 바구니에 담겨 있는데요 사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나물입니다. 냉이가 어찌 계절도 없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계절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참 별스러운 세상입니다. 춘분을 시작으로 온갖 봄꽃들이 터지기 시작하지요. 봄 인사 드립니다.^^

② 6000

〈햇별같은이야기〉 아침편지가 2월 6일 드디어 6000번째 글을 띄웠습니다. 다른 분들 눈에는 6천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매우 가슴 벅찬 숫자이군요. 이 숫자를 쓰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5000호를 발행했을 때는 교회에서 무슨 기념패 같은 것을 만들어 줘서 되게 쑥스러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별같은이야기〉매일편지는 1995.8.12. 일 pc통신 하이텔 플라자 큰마을 게시판에 날마다 한 편씩 1만편의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첫 글을 올리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매일 한 편씩 신문에 6701편의 칼럼을 썼던〈이규태 코너〉를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글을 쓴지 20년 만인 2014년 5000편을 넘어 반환점을 돌았으니, 제가 70세 이전에 죽지 않는 한 1만회는 무난히 달성할 것입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2018.1.23〈행복일기-너와 나와 우리의〉396쪽 13200원이 나왔습니다.

2018.2.23〈예수님을 따르는 삶〉 328쪽 12200원이 나왔습니다.

2018.3.27.〈찬양하라 내영혼아〉400쪽이 나올 예정입니다.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23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해 주심으로 햇별같은이야기 사역을 거들어 주십시오.

●살림 드러내기 -2017. 7월 재정결산

2017년 7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승모 구호준 김영옥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박종환 오창근 옥치오

이주향 이진우 임주영 정효숙 지경희 한주환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주님의교회 한길중앙교회

총 수입 21분이 2,110,277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 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이름으로 ‘인터넷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18.3.21일 현재 6034호 발행

②문서사역-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CD,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40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목요기도화-매주 목요일에 모여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2018년에는 2곳을 후원합니다.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천주교에는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업무에서 벗어나 묵상과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는 고요한 곳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찾아가 쉬는 ‘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마4:1-2)을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 한 것이 피정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간혹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흠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개인문서선교지입니다.

*홈페이지 <http://cyw.pe.kr> cyw.kr cyw.co.kr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최용우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쑈티2길 5-7번지 (용포리 53-3)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583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